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아동의 정서, 행동에 미치는 임상효과

The Clinical Effect of School Sand Play Group Counseling on Child Emotion and Behavior

곽현정*, 안운경*, 한길자**, 임명호***

단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맑은마음 상담센터*, 충남교육청**,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심리학과***

Hyeon Jeong Kwak(hangil7955@naver.com)*, Un Kyoung An(hanpath@gmail.com)*, Kil Ja Han(hkj802@korea.kr)**, Myung Ho Lim(paperose@dku.edu)***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임상적인 효과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아보려 하였다. OO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4-6학년 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12주간 10회기의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을 시행하였다. 소그룹은 아동 10명-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기는 Baseline 평가, 치료 10회기, 사후 평가회기 등 총 12회기로 구성되었다. 대상군은 남아 56명(49.6%), 여아 57명(50.4%)이었으며, 평가도구로는 역학 설문지와 한국아동청소년인성검사(Korea Child & Youth Personality Test, KCYP)를 Baseline 시점과 치료 후에 각각 평가하였다. 12주의 모래놀이 시행전후에서 KCYP의 임상척도 및 세부평가척도 점수를 각각 비교한 결과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후 초등학교 학생의 자존감이 향상되었으며 우울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은 초등학교 학생의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존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중심어 : |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 아동 | 정서 | 행동 |

Abstract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clinical effects of school sandplay group counseling on the emotions and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method of survey is to consult 113 students in the 4th - 6th grade of OO elementary school for 10 weeks from March to July 2015. The small group consisted of 10 to 16 children, with one principal counselor and three or four assistant counselors participating, with 40 minutes of treatment, and a total of 12 follow-up sessions, including the Baseline assessment and treatment sessions.

It was conducted to 56 male(49.6%) and 57 female(50.4%) students with questionnaires for their sex and age, assessing KCYP results at the point of baseline and post-therapeutic condition. A comparison of the clinical and detailed assessment scale scores of KCYP before and after 12 weeks of Sandplay resulted in a significant effects in improved and reduced symptoms depres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ter the school sandplay group counseling.

School sandplay group counseling is thought to help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problems and self-esteem.

■ keyword : | School Sandplay Group Counseling | Children | Emotion | Behavior |

I. 서론

1980년대 Domenico는 Lowenfeld의 모래놀이 '세계 기법(The World technique)'을 연구하던 중 이기법이 갖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독특한 가치를 발전시켰다[1]. 이는 Kalf의 개별 모래놀이치료와는 다른 접근이었다. Boik과 Goodwin은 다양한 대상과 집단으로 진행된 모래놀이상담에서도 개별로 진행된 모래놀이상담과 같은 치유와 성장이 있다고 하였다. 이후 임상가들은 모래놀이의 대상과 인원을 성인과 가족으로 다양하게 넓히며 집단상담을 발전시켰다[2]. Wang[3]은 문제행동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심리사회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개별상담보다는 집단상담이라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아동은 서로를 정직하게 직면하며, 타인과 정서적인 친밀함을 경험한다. 또한 모래놀이를 활용한 집단상담은 학교 상담을 위한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래놀이는 아이들의 막힌 에너지를 풀어 주고 잠재된 자기치유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4].

Dale[5]은 학교현장에서의 모래놀이치료는 학교폭력 피해자, 우울과 자살 시도, 심한 품행장애, 행동문제로 학습 참여가 어려운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Campbell[4]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모래놀이치료가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는 아동들에게 대인관계와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하였다. 또한 모래놀이치료가 집중력과 전체 운동감각 증진에 영향을 주고, 주의력 결핍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개선한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정서적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집단 상담 개입은 중요하다.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집단이고 유연하게 잘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6].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는 짧은 회기가 요구되지 않아도 짧은 시간 효과가 있으며[4] 이러한 결과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짧은 시간에 많은 아동을 보는 학교 상담가의 요구와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7].

Campbell 등은 학교 현장에서 8-10회기 모래놀이치료 상담에 참여한 대부분 아동들이 문제해결 단계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8회기 후에 아동의 정

서 상태와 학교생활 참여능력에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4][8].

본 연구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In School, With Teacher, As Class"라는 조건임을 말한다. 즉 "In School"은 학교 안에서, 혹은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상담기관에서 시행되는 모래놀이상담을 뜻하며, "With Teacher"는 교사 혹은 학교 상담사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As Class"는 학교 교육 과정으로서 최소 8회 이상 실시한 상담을 의미한다[9][10]. 그간의 국내의 모래놀이 집단상담은 사례연구 및 20명 미만의 소규모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학교 밖에서 수행되었다[9].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수행되는 모래놀이치료는 본 연구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종합적인 임상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문헌고찰

모래놀이 집단상담은 선행연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임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9]. Wang[3]은 품행장애가 있는 전사춘기 아동 56명을 대상으로 한 10주간의 모래놀이 집단상담 연구결과 대상자들이 부모기대에 대한 비순응 행동, 규칙 위반,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화, 위축, 우울, 걱정 등의 내면화 문제에서도 유의한 감소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Christine[10]은 911 세계무역센터 사건에서 대피했던 32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한 32주간 집단모래놀이치료에서 참여 학생들의 학업 및 행동, 정서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호선[11]은 3-4학년 10명에게 실시한 집단모래놀이상담 12회기 결과에서 아동의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감소를 보고하였다. 유승은[12]은 초등학교 4학년 12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모래놀이상담에서 아동들이 불안이 감소되고, 자아탄력성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금란[13]은 8명의 아동에게 실시한 집단모래놀

이 상담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임상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지영[14]도 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모래놀이상담이 아동의 불안과 자아강도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문미쁨[15]은 장애아동을 형제로 둔 6명의 초등학생들에게 18회기가 진행된 집단모래놀이상담에서 참가아동들의 우울이 감소되고, 자존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arey[16]은 모래상자의 물리적 경계와 모래 촉감이 아동들의 문제행동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Wang[3]은 품행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래놀이 집단상담 결과 부모기대에 대한 비순응 행동, 규칙위반, 공격성을 보이는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이효선[11]은 3-4학년 아동 10명에게 12회기의 집단모래놀이상담을 실시한 결과 비행공격성이 감소되고, 또래관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미라[17]는 모래놀이상담이 주의력 결핍 아동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문제 행동을 개선하였다고 하였으며, 한지혜[18]는 방입아동 4명에게 7회기의 집단모래놀이 상담을 실시한 결과 분노표현, 분노조절,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서 및 행동장애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래놀이상담이 주의집중문제, 비행행동과 공격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진재륜[19]의 보고가 있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에 참여한 아동 126명 중 Baseline 평가 - 사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1명과 Baseline 평가 - 사후 KCYP 검사 결과 반응 타당도척도(반응 신뢰도, 특이반응, 과장, 방어)의 T점수가 65점 이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아동 2명을 제외하였다. 최종 11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군은 각각 남아 56(49.56%), 여아 57명(50.44%)이었다.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12.06±0.77세였으며 초등학교 4-6학년이었다 [표 1].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12주간 수업

시간에 10회기의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으로 시행하였다. 소그룹은 아동 10명-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상담사 1인과 보조상담사 3-4인이 참여하였고, 치료시간은 40분이며, 회기는 Baseline 평가, 치료 10회기, 사후 평가회기 등 총 12회기로 구성되었다.

모든 대상자들에게는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의 학부모 및 학생에게 구두 및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 중 자유의사에 의한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의 회기진행 및 프로그램은 Boik과 Goodwin의 '의사소통 모래상자(Communication sand tray)'를 기반으로 학교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으며[2], Kalf의 발달단계를 적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모래상자를 꾸미는 동안은 집중을 위하여 '침묵'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모래놀이 집단상담이 끝나면 상자의 소품은 아동들이 치우지 않고, 상담사들이 정리하여 '보호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20].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의 진행과정과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은 [표 2]와 같다.

2. 연구도구

2.1 역학 질문지

대상군의 기본 설문 문항으로 성별, 연령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한국아동청소년인성검사(KCYP)

한국아동청소년인성검사(Korean Children Youth Personality, KCYP)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 237문항으로 되어있으며, 미국의 아동용 성격검사(Lachar, 1982) 및 청소년용 성격검사(Lachar & Gruber, 1995), 그리고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성향을 알아보는 검사 등을 포함하였다[21]. 자녀보고용의 경우 각 문항을 읽어보고 예/아니오(True/False)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부모보고용은 4점 척도[그렇다(True) - 조금 그렇다(Some true) -

조금 아니다(Some false) - 아니다(False)]로 되어있다.

타당도 척도는 특이반응, 반응신뢰도, 과장, 방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 영역 척도는 자아강도, 정신증(현실왜곡, 환각), 신체화(심인증, 긴장/불안, 건강염려증), 정서혼란(공포, 우울, 수면장애), 위축(내향성, 고립감), ADHD(주의결함, 과잉행동), 비행(반항성, 품행문제), 사회관계(또래 소외감, 또래와 갈등), 가족관계(부모와의 갈등, 가정불화), 학습곤란, 미디어몰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반응성향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5-.85이고, 성격특성영역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4-.89이다[21]. 본 연구에서 보여준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분석 방법

자료는 한글판 SPSS 15.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필요에 따라 역학 설문 의 빈도비교는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래놀이치료 시행 전후의 두 집단 간의 KCYP 점수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각각 p 값이 .05 미만인 경우를 유의성이 있음으로 판단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6학년 학생 113명(평균 연령 12.06±0.77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군은 각각 남아 56(49.56%), 여아 57명(50.44%)이었다.

2. 모래놀이의 임상효과

Paired t-test를 시행 후 결과적으로 모래놀이 시행 후 Baseline에 비해서 정서적 요인인 자아강도($t=-3.16, P=.002$), 현실왜곡($t=2.35, P=.021$), 긴장불안($t=3.75, P=P<.001$), 건강염려($t=2.90, P=.005$), 공포($t=3.53, P=.001$), 내향성($t=2.13, P=.03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주의결함($t=2.74, P=.007$), 반항성

($t=2.68, P=.008$), 품행문제(3.93, $P<.001$), 부모와의 갈등(3.45, $P=0.001$) 등 행동적 요인에서 [표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1. 대상군의 역학적 특성

Variables	Subjects (N=113)
	Mean(S.D.)
Age*	12.06±.77
	N(%)
Sex	
Male	56(49.56%)
Female	57(50.44%)

표 2.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의 진행과정 및 구성

단계	활동내용	시간(분)
도입	*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교육 및 설명(1회기만 적용) * 모래놀이치료의 치료계약설정 모든 친구의 작품을 만지거나 방해하지 않기, 모든 친구의 작품설명을 적극적으로 듣기,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말하기, 비난하지 않기 등	5분
	* 눈감고 모래를 만지며 감정 접촉하기, 주제 떠올리기	
활동	* 소품장 탐색하기 자유롭게 자신의 모래상자에 작품 꾸미기 (상담자는 조원 활동을 관찰 기록함)	15분
나눔 마무리	* 모둠별로 각자의 상자를 소개하기 서로의 상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 나누기	20분
	* 상담자는 아동의 설명을 듣고 기록, 질문, 평가 및 역동을 파악함 * 아동 퇴장 후 사진촬영, 상담 기록 보완 및 치료적 개입 논의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	회기	활동 내용
출발	1	모래놀이를 통한 내 마음 여정의 출발; 모래를 만지며 자유롭게 떠오르는 감정을 표현하기
탐색(자기 감정의 접촉과 표현)	2	눈을 감고 모래를 만지며 슬픔, 기쁨, 아픔, 행복 등 기본적인 여러 감정을 느끼고 상자에 표현하기
	3	자신이 겪었던 사건과 상황을 떠올리며 그 때 느낀 내적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갈등·투쟁	4	갈등·투쟁 등 부정적 정서를 느껴보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5	어려움과 고난, 역경과 맞서 싸우는 영웅을 상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관계 살피기(가족·친구·학교)	6	가족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감정을 표현하기
	7	친구, 학교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감정을 자유롭게 모래상자에 표현하기
자기 이해와 수용	8	과거·현재·미래의 나 혹은 부정적인 나, 긍정적인 나 등 나의 여러 모습을 상자에 표현하기
	9	지금까지 꾸민 나의 작품을 떠올리며 내 마음의 중심과 보물을 표현하기
새로운 탄생	10	새로운 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며 성장하고 성숙한 나의 모습을 표현하기

표 3. 모래놀이 사전 사후 임상척도 변화 KCYP

척도	모래놀이 치료전 (N=113)	모래놀이 치료 10주 후 (N=113)	t	p value
타당도				
반응신뢰도	48.18±8.75	44.48±8.48	4.80	<.001
불일치	47.65±8.73	46.48±7.97	1.68	.097
과장	51.91±9.90	54.32±9.47	-2.90	.005
방어	48.59±9.87	48.73±9.46	-.15	.88
자아강도				
정신증	53.37±9.76	55.32±10.06	-3.16	.002
현실왜곡				
환각	50.11±9.35	48.33±8.46	2.35	.021
신체화				
내재화문제				
심인증	48.29±9.41	47.01±9.30	1.46	.146
긴장/불안	49.23±8.88	46.42±8.86	3.75	<.001
건강염려	49.77±10.15	47.11±9.25	2.90	.005
정서혼란				
공포	48.52±9.84	45.58±9.23	3.53	.001
우울	48.83±9.28	47.79±9.06	1.48	.141
수면장애	48.47±10.46	46.95±9.13	1.90	.060
위축				
내향성	48.56±9.99	46.90±9.02	2.13	.035
고립감	48.55±8.01	47.78±7.86	.93	.354
ADHD				
주의결함	49.12±8.90	46.56±8.82	2.74	.007
과잉행동	48.37±9.19	47.55±8.85	1.06	.292
비행				
반항성	48.03±8.60	46.07±7.38	2.68	.008
품행문제	49.08±9.05	46.01±7.56	3.93	<.001
사회관계				
또래소외감	49.50±9.63	49.99±9.81	-.68	.497
또래갈등	48.27±8.25	48.43±8.50	-.23	.821
가족관계				
부모와 갈등	49.56±8.86	46.90±6.96	3.45	.001
가정불화	47.34±9.04	46.35±8.72	1.45	.151
학습 학습곤란	48.25±9.46	46.64±9.56	1.83	.070
관련 미디어과몰입	48.56±8.12	48.09±8.06	.63	.532

V. 논의

본 연구 결과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아동의 정서적 문제인 긴장/불안, 건강염려, 공포, 위축(내향성)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지 및 행동문제인 주의력 결함, 비행(반항성, 품행문제)도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외에 자아강도 및 부모갈등 등에서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Christine[10]은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이후 비극적 상황을 경험한 아동들에게 학교 내에서 실시한 집단 모

래놀이상담 후 아동들의 부정적 감정과 정서가 완화되거나, 강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Wang[3]은 품행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래놀이 집단상담 결과 신체화, 위축,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집단모래놀이상담 후에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문제감소를 보고하였다[11]. 유승은[12]은 집단모래놀이상담 후 아동들이 불안이 감소되고, 자아탄력성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금란[13]은 집단모래놀이 상담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임상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박지영[14]도 집단모래놀이상담이 아동의 불안과 자아강도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쳤다고 보고하였으며, 문미쁨[15]은 집단모래놀이상담 후 참가한 아동들의 우울이 감소되고, 자존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적인 특성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우울, 불안, 공포 증상을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는 등의 신체 증상으로 표현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도 긴장/불안과 건강염려, 공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울과 유사한 정서적 문제에 효과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모래놀이 집단상담 후 참여 아동의 우울이 감소되었다는 선행연구[11][15]와 부합된다. 또한 학교부적응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우울증상 및 신체증상을 동반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임상효과가 있었다는 안운경[22]의 연구결과는 집단모래놀이 상담이 아동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에게서도 임상적으로 우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래놀이상담이 아동들의 문제행동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16]. Wang[3]도 품행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래놀이 집단상담 결과 부모기대에 대한 비순응 행동, 규칙위반,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이효선[11]은 집단모래놀이상담 결과 비행공격성이 감소되고, 또래관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미라[17]는 모래놀이상담이 주의력 결핍 아동의 문제행동을 긍정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한지

혜[18]는 집단모래놀이 상담이 방입아동에게 분노표현, 분노조절,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모래놀이상담이 주의집중문제, 비행행동과 공격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진제 특[19]의 보고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 [3][4][11][17][18]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부합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고,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의 갈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갈등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정연정[23]의 보고와 부합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아동의 여러 가지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종합적인 임상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임상효과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 시행 후 Baseline에 비해서 KCYP상 자아강도, 현실왜곡, 긴장불안, 건강염려, 공포, 내향성, 그리고 주의결함, 반항성, 품행문제, 부모와의 갈등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래놀이 상담이 정서증상 혹은 행동/사회성증상에서 임상효과를 보고한 국내외의 여러 선행연구[3][5][10-15][17-19][23]의 결과와 부합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KYCP의 타당도 척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검사의 신뢰성이 입증되었으나, 자기보고식 검사로 개인의 병리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여 모든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본 연구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학급 전원이 참가하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었으나 이후에는 일반대조군 혹은 정서 및 문제 행동을 동반하고 있는 아동집단과 일반 대조군집단을 대조군으로 하여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국내에 발표된 선행연구들은 개별상담이나 3-16명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모래놀이 집단상담이었다[9].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집단상담이지만 실험집단 4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에 주상담사를 제외하고도 2-4명의 보조상담사가 참여하는 등 집단상담 환경 구성에 있어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의 중도적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9][13][1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0명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종합적인 임상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래놀이 집단상담이 학교현장에서 유용한 중재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12주간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을 시행한 결과, Baseline에 비해서 긴장불안, 공포 등의 정서적인 측면과 주의결함, 품행문제 등 행동적인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임상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문헌

- [1] R. R. Mitchell and H. S. Friedman, *Sandplay past, present and future*, Routledge Press, 1994.
- [2] B. R. Boik and E. A. Goodwin, *모래놀이치료*, 학지사, 2016.
- [3] M. H. Wang, "Group sandtray therapy at school with preadolescents identified with behavioral difficulties,"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Vol.32, No.4, pp.362-382, 2007.
- [4] M. A. Campbell, "Value of Sandplay as a

- Therapeutic Tool for School Guidance Counsellors,”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Vol.14, No.2, pp.211-232, 2004.
- [5] M. A. Dale and W. J. Lyddon, “Sandplay: A constructivist strategy for assessment and change,”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Vol.13, pp.135-154, 2000.
- [6] U.S. Public Health Service,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s conference on children’s mental health: A national action agenda,” U.S. Public Health Service, 2000.
- [7] T. Kestly, Group sandplay in elementary schools, In A. A. Drewes, L. J. Carey, and C. E. Schaefer (Eds.), School-based play therapy, John Wiley & Sons, pp.329-349, 2001.
- [8] J. Allan and P. Berry, “Sandplay,”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No.21, pp.300-306, 1987.
- [9] 광현정, 학교모래놀이 집단상담이 아동의 정서, 행동에 미치는 임상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10] J. Y. Christine, “The Use of Sandplay Therapy in Urban Elementary Schools as a Crisis Response to the World Trade Center Attacks,” Psychology Research, Vol.5, No.7, pp.413-427, 2015.
- [11] 이효선,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이혼가정 아동의 또래관계기술 증진과 행동문제 감소에 미치는 효과,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2] 유승은,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아동의 불안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 연구, 제14권, 제1호, pp.67-88, 2010.
- [13] 김금란, 구조화된 집단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 지각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4] 박지영,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아동의 사회불안과 자아강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5] 문미쁨,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장애아동 형제의 스트레스와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16] L. Carey, “Sandplay therapy with a troubled child,”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17, pp.197-209, 1990.
- [17] 김미라, 의사소통 모래상자 놀이가 ADHD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8] 한지혜, 집단모래상자놀이치료가 방임아동의 분노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9] 진재록,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모래놀이 치료의 효과,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0] D. M. Kalf, “Introduction to Sandplay Therapy,” Journal of Sandplay Therapy, Vol.1, No.1, 1991.
- [21] 임호찬, 한국아동청소년인성검사 해석지침서, 한국가이던스, 2015.
- [22] 안운경, “모래놀이치료가 청소년의 행동, 정서에 미치는 임상효과 - 다면적 인성검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pp.257-265, 2017.
- [23] 정연정, “가족건강성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90-97, 2017.

저 자 소 개

곽 현 정(Hyeon Jeong Kwak) 정회원



- 2017년 8월 : 단국대학교 정책경 영대학원 상담심리학과(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
- 2007년 1월 ~ 현재 : 사단법인 맑은마음 상담센터 대표이사

<관심분야> : 모래놀이상담, 아동 청소년정신건강

안 운 경(Un Kyoung An) 정회원



- 2017년 8월 : 단국대학교 정책경 영대학원 상담심리학과(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
- 2007년 1월 ~ 현재 : 사단법인 맑은마음 상담센터장

<관심분야> : 모래놀이상담, 아동 청소년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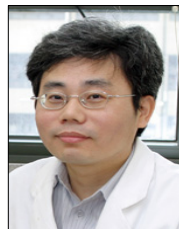
한 길 자(Kil Ja Han) 정회원



- 2000년 2월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석사)
- 2012년 2월 : 선문대학교 교육상담학과(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충청남도 교육청 상담장학사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및 교원 수퍼비전

임 명 호(Myung Ho Lim) 정회원



- 1992년 2월 : 충남대학교 의학과(의학사)
- 2002년 8월 : 단국대학교 정신의학과(의학박사)
- 2003년 3월 ~ 2013년 12월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환경보건의학, 임상심리학, 정신과학